

'8년 답보' 조대병원 버스정류장 설치 해법 없나

환자·방문객 등 하루 8000명...버스 정차 안해 500m 도보 이동 불편 학내 시내버스 4개 노선 운행 중인데 개인택시조합 반대에 경유 안돼 노선 연결 요청 번번이 무산...내일 병원·택시조합·시의원 논의 주목

조선대학교병원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8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고지대에 있는데도 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 터라 교통약자들도 이용하기 쉽게 시내버스 노선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인데, 광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퇴짜를 내면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조선대학교 교내에는 57번, 61번, 87번, 419번 총 4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조선대병원입구', '조선대대학원', '조선대해오름관', '조선대장미원' 등 4곳의 정류장을 경유해 운행하고 있다. 이 중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은 '조선대병원입구' 정류장인데 이곳까지 병원에서 500여m 떨어져 있는 대학 정문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조선대병원입구 정류장을 찾아가 보니 병원은 언덕 너머 고지대에 있어 정류장에서 보이지도 않았다. 낮 최고기온 29도로 더운 날씨에 경사진 도로를 걸어 올라가다 보니 200여m도 못 가 금세 옷이 땀으로 젖었다. 간이 경사계로 측정한 이 도로의 경사도는 15~25%(경사각도 8~14도) 수준으로 가팔랐다.

특히 병원 이용이 잦은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해당 경사로는 더욱 가혹했다. 이날도 언덕길을 오르던 어르신들이 걷다 멈춰 쉬기를 반복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수 차례 목격됐다.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래환자 32만 4322명이 찾아왔는데, 이 중 50%에 해당하는 16만 2054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환자들이 자기 차량을 끌고 오는데, 이들을 수용할 주차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조선대병원에는 주차타워를 포함해 약 1000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으나 매일 오전 9시 30분이면 가득 차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500여명, 환자 보호자와 교직원까지 합치면 하루 7000~8000여명이 조선대병원을 오가는 만큼 주차 공간을 아무리 늘려도 차량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앞 광장. 조선대병원은 지난 8년 동안 시내버스가 이 광장을 경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해 왔다.

또 병원 진료가 끝나는 오후 5시 이후로는 병원 입구에서 대기 중인 택시가 없으며 콜택시조차 안 잡히는 상황이라 택시 이용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택시조합 측은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택시 운수 종사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택시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병원 앞에 버스가 지나게 되면 수익이 더욱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병원 앞은 보행자가 많고 길이 좁은데다 급경사도 많아 큰 버스가 들어오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또한 "버스 운행 소음이 큰데다 주말 12시 밤 늦은 시각까지 운행하다 보면 입원 환자들이 오히려 불편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보행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비교적 큰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도 수많은 좁다란 외곽 도로와 사람 많은 도심에서 버스가 사고 없이 잘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조선대병원 내 불만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 불편'이었다. 불편 해소를 위해 병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나 조선대병원-남광주역-동구청 좁은 범위만 돌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하루 빨리 조선대병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돼 광주 전역의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5일 조선대병원장,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박미정 광주시의원 등과 함께 조선대병원 내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기택시 13중 추돌사고 택시기사는 급발진 주장

운행 중이던 전기택시가 차량 13대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순천경찰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앞 삼거리에서 전기택시가 앞서던 차량 13대와 추돌한 후 전복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63)씨와 택시 승객 20대 여성,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전기택시는 편도 4차선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앞에 있던 SUV 차량과 추돌했다. 사고 이후에도 택시는 멈추지 않고 2차로를 달리던 차량 옆면을 스치며 나갔다. 전기택시는 차량이 없던 3차로에서 약 400m를 더 주행하다 골목에서 나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전복됐다.

A씨는 택시기사 경력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아 당황해하는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담겼다고 전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버스에 받혀 SUV 운전자 사망

버스가 노부부가 타고 가던 SUV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빛고을대로에서 상무지구 방향으로 달리던 투싼 차량을 25인승 버스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동승자인 80대 아내는 중상으로 입교 병원에서 이송됐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버스 운전사는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산단서 유해가스·바다에선 기름...여수 잇단 유출사고

폭발사고 인명 피해는 없어 해양 오염에 방제작업 나서

여수산단에서 또다시 폭발사고로 유해가스 유출되고 바다에서는 기름이 유출되는 등 여수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3일 여수경찰과 여수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철거 중인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8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발은 여수산단내 실리온공장 철거 작업 중 탱크 배관이 7.6cm 정도 절단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제 3위험물'로 분류된 자연발화성 및 급수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 실란'이 유출됐다. 이 물질은 반도체 및 태양전지 원료로 사용되는 무색의 자연 발화성 가스로 장기간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여수 앞바다에서는 해양오염이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3일 오전 9시께 여수시 장군도와 여수해양조선소 사이 바다에서 검은 무지갯빛 기름띠가 보인다. 신고가 관공객에 의해 여수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검은 무지갯빛 유막이 넓게 분포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정과 경비함정 등 15척 등을 동원해 흡착포와 소화포로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화재로 얼룩진 연휴...광주·전남 5명 사상

국군의날과 개천절로 이어진 연휴동안 광주·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일 완도소방과 완도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3시 10분께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불이난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으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탓에 화재에 대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새벽 1시 40분께 나주시 동강면 월랑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전기단선으로 추정되는 불로 모자가 함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인 B(82)씨와 아들 C(52)씨는 불이 난 줄 모르고 잠을 자다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목포에서도 연립주택에

불이나 50대 여성이 숨졌다.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된 이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광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하남 진곡산단 폐목재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 작업자 D(60)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내 환풍구에서 작은 불이 났고 진화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집진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은 지난 2020년 3월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유한회사 제1차 모인 유동화전문회사 설립 주주 모집 공고

당 사는 npl채권매입, 경매,공매, 경,공매 특수물건 및 부동산개발 업무를 다년간 운영해온 회사로써 유한회사 제 1차 모인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자 주주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
|--|------------------------------|
| 모집조건 | 법인설립 자금 |
| 부동산개발(시행,분양업무) 및 법인 경매,공매 특수물건에 투자하여 수익창출을 원하시는 분. | 20억원 |
| 임원 수 | 모집기간 |
| 제한없음 | 2022. 10. 1. ~ 2022. 10. 30. |
| 법인존속기간 | 배당금(수익금) |
| 목적 사업 달성 후 배당금 절차를 마치고 법인 청산. | 각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금 산정 방식. |

그 외 상세내용은 내방 후(예약필수) 설명
문의 담당자 010-9569-8456
2022. 10. 4.
유한회사 모인 파트너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